

‘최고 인기’ 하이다이빙·오픈워터 입장권 매진…성공 예감



광주세계수영대회 D-10

① 성공 개최만 남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성공 대회만 남았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10일 앞두고 경기장을 비롯한 선수촌 등 대회 관련 시설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각 경기장과 선수촌 등 대회 시설 내에 통신설비와 물자, 경기 운영 용품 배치 등이 이뤄지고 있고, 시상 등 진행요원들의 전문교육이 진행되는 등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또한, 일부 경기의 입장권이 이미 매진이 되는 등 전체 입장권 판매율도 90%에 육박하면서 대회 성공 개최가 기대되고 있다.

광주일보도 대회 개막 10일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현황과 공사가 완료된 선수촌과 경기장, 방송센터 등 대회 관련 시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종목별 국내외 유명 선수들과 광주·전남 출신 선수들을 차례로 소개할 계획이다.

◇선수촌·종목별 경기장 공사 완공·물자 및 인력 배치=광주 광산구 송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건립한 선수촌은 2일 미디어 오픈 행사를 갖고 오는 5일 공식 개촌식을 연다. 이어 6일부터는 각국 선수들의 입국에 맞춰 입촌식을 가질 예정이다. 각

종목별 경기장 시설도 공정을 100%로 모두 공사가 마무리됐다.

수구 경기가 열리는 남부대 종합운동장 공사가 애초 예상보다 늦어졌을 뿐 모든 경기장은 지난달 말 모두 완공됐다. 조직위는 현재 선수촌과 경기장 등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 등을 배치하고 실전 체제로 전환해 근무중이다.

수영대회 현장에서 펼쳐질 수많은 감동의 순간을 전 세계로 전파해 줄 국제방송센터(IBC)도 지난달 27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방송 준비에 들어갔다. 대회 주관방송사인 MBC와 TV 아사히가 경기장면을 영상과 음향을 국제신호로 세계 각 나라에 수신, 전환, 송출하는 역할을 한다. 광주수영대회의 주요 경기 장면은 전 세계 60여 개 방송사를 통해 20억 명이 이상이 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장권 판매도 순항=판매 목표량 무난히 넘을 듯=대회 개막 10일을 앞두고 입장권 판매율은 88% (누적 판매금액)를 돌파하면서 종목별 경기장별로 만석이 예상되고 있다.

조직위와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입장권 판매는 목표 판매량 36만 9000매 중 누적 판매량 28만 6000매로 77.47%에 달하고 있다. 누적 판매금액은

전체 입장권 판매율 88% 돌파

판매 목표량 무난히 넘을 듯

선수촌 미디어오픈 이어 5일 개촌

국제방송센터 지난달 27일 개소

시상식 등 진행요원 전문 교육도

66억110만원으로, 총 판매목표(90%)에 육박하는 88.15%를 기록하고 있다. 조직위는 입장권 총 발행 41만 9000매(판매액 89억 4000만원) 가운데 90%인 36만 9000매(75억원)를 판매 목표량으로 정했다.

종목별로는 27m 높이에서 무등산을 배경으로 최고의 명장면을 보여줄 ‘하이다이빙’과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펼쳐지는 ‘오픈워터 수영’이 일찌감치 입장권 판매 목표량 100%를 달성했다. 이어 물속의 아름다운 발레를 볼 수 있는 아티스틱 수영과 스피드 경기인 경영, 다이빙도 뒤를 이어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대회의 유일한 단체 구기종목인 수구는 다소 낮은 판매율을 기록중이다.

◇시상식 등 진행 요원 전문교육, 콜센터 등 만반의 준비 갖춰=대회 시상식 진행요원들의 전문교육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조직위는 이번 대회의 품격있는 시상식 진



1일 오전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 5층 회의실에서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과 롯데제과·신항법 마케팅 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제과·빙과 부문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롯데제과는 수영대회 운영 인력 등에게 간식을 제공한다.

행을 위해 시상요원 4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차 교육에 이어 이날부터 이틀간 광주 여대 황룡관에서 2차 교육을 실시중이다. 이들은 역할분담, 자세실습, 표정 및 시선 처리법 등의 기본교육과 워킹 등 시상에 필요한 전반사항을 완벽하게 숙지하게 된다. 조직위는 대회 전까지 시상 요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리허설도 가질 예정이다.

조직위는 또 대회 참가 선수와 국내 관

람객 편의를 위해 대회 공식 콜센터도 운영한다. 대회 공식 콜센터는 이날부터 마스터스대회 폐막일까지 8월 18일까지 운영된다. KT 북광주지사가 운영하는 대회 콜센터의 번호는 1577-1055이며,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15시간동안 운영된다.

특히 KT 콜센터(1577-1055)는 한국어를 비롯해 경기장을 찾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운영되며 통역이 가능한 18명의 운영 요원이 교대로 근무한다. 대회 콜센터의 주요서비스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대회 관련 각종 정보와 숙박, 교통, 관광소식, 이벤트 등의 안내이다. 또, 콜센터 외에도 남부대학교 주경기장에 설치된 대회 종합상황실(MOC)에도 직접 민원인이 전화할 수 있도록 대표전화(062-236-9000)를 설치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평화당 시당 “5·18 특별법·망언의원 제명 윤리특위 구성하라”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5·18 망언의원 제명을 위한 국회윤리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광주시당위원장과 장병완 전 원내대표, 천정배 의원은 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가 어렵사리 정상화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배제한 채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빼고 자유한국당과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이 당초 5월 24일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한국당으로부터 어떤 약속이나 추가 합의도 없이 이번 합의를 했다”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6월 말로 종료됐는데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윤리특위 연장이나 구성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



민주평화당 천정배·장병완·최경환 의원과 김명진 광주서구갑지역위원장(오른쪽부터) 등 당직자들이 1일 광주시의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망언의원 제명을 위한 국회윤리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았다”며 “윤리특위는 5·18 망언 의원들의 제명 건이 안전으로 상정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연장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은 또 “윤리특위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5·18 망언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즉각 분회의를 열어 실종된 윤리특위를 새롭게 구성하고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 출범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자당 백승주 의원과 10명이 공동발의한 진상조사위원 자격을 ‘군인 경력 20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하도록 하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부, 판문점 남북미 회동 남북대화로는

북미 ‘깜짝 회동’에 소강상태 남북관계 환경도 개선

남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깜짝 회동’으로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흐름이 마련되면서 정부도 이를 남북대화 재개의 계기로 이어갈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하노이 노딜’의 여파로 소강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번에 북미 정상이 만나 교착상태를 해소하면서 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됐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일 “(판문점 회동으로 마련된) 이 환경을 어떻게 남북대화 발진시켜 나갈지를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정부는 그간 해왔던 남북 간 대화, 협력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판문점 회동은 남북미, 남북 사이의

소통보다는 북미 정상의 양자 대화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적어도 남북 정상의 우호적인 관계는 재확인됐다는 평가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반갑게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는 등 남북정상 간 친밀함을 강조한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 자유의집 앞에 모였을 때 “이런 순간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해준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한 것이다.

정부는 전날 판문점 회동에서 나타난 북측의 대남 태도와 향후 북미 실무협상 재개 전망 등 정세 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문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정검다

리’로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만나 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이미 대화 흐름을 만들어 낸 만큼, 시급히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필요성은 다소 적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당장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어렵다면 정부는 남북 고위급회담 등의 틀을 통해 산적인 남북간 협안을 풀어보려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미국의 공공대를 얻은 끝에 지난 5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공단 폐쇄 이후 처음으로 승인했지만,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남북 관련 협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자산정검을 위한 기업인 방북은 공단 재개와 무관하다”는 남한 정부의 입장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산가족 화상상봉의 경우에도 관련 장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면제와 국내 준비 등을 모두 마치고 대북 협의만 남아있는 상태다.

/연합뉴스

1 6 5 2
6 8 2 4 7 5 8 1
2 5 1 6 4 9 7 8 3
1 3 0 7 5 8 4 9 2
2 4 6 3 7 1 2 8 0
4 6 2 8 1 0 9 7 3
5 7 6 2 1 4 3 0 2
6 9 1 7 4 9 8 0 2
8 7 6 1 4 9 0 0 2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화정역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 광주지사

상무대로

오시는 길

화정역 4번 출구 / 농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